

지역 매아리

부안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가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부안군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비롯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1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총 26개소에 대한 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군정 주요 사업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 등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날 이한수 의장은 "부안군 발전을 염원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에 더해 부안군의회와 집행부가 협심하는 노력까지 함께한다면 군민을 위해 못 이룰 목표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임시회의 추경예산안 심사와 사업 현장방문으로 부안군민을 위해 더욱 더 소통하고 합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적극행정 문화 확산 총력

권익현 부안군수, 연석회의서 적극행정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적극행정"은 우리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 마음가짐"이라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26일 열린 8월 중 연석회의에서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직사의 안팎에 공유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적극행정은 우리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 마음가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각 부서별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 직원이 서로 공유해 부안군정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정부에서 아름다운 도정상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공무원에게도 우수사례와 별도로 상을 주기로 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는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노력하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주역 계사편의 태어나고 또 태어나라"와 논어의 '태어나고 또 태어나라'와 논어의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처럼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삼성과 소니, 노키아와 애플 등의 사례처럼 새로운 사업과 기술이 나오면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안군정에 접목할 점이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해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드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정부가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의결을 통해 그동안 금지됐던 국유지에 생활 SOC 시설 건축을 허용기로 했다"며 "지자체의 지역특화개발 사업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국유지 매각·대부·교환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돼 있는 꿈소시장을 부안군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해풍고추축제 4만5천여명 몰려 '대성황'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해리면 복지회관 일원에서 '청정 해풍고추, 그 참맛과 참빛 체험!'을 주제로 고창해풍고추축제가 관광객 4만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토진 고창부군수와 조규철 군의회 의장, 군의원, 김갑선 고추축제위원장, 유성엽·백재현 국회의원, 김만기 도의원, 김광중 재경군민회장, 관내 기관단체장, 군민과 관광객이 참석하여 청정농산물로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고창해풍고추축제를 축하했다.

축제는 500명분 비빔밥 잔치로 행사에 참가한 관광객에게 비빔밥을 나눠줬고, 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전달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풍고추 및 고창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는 농가가 직접 재배한 고품질 고추와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축제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

았다. 3일간 직거래 장터를 통해 고추 1만6200kg(2만7000근)이 판매되며 3억 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남겼다. 고추 직거래 장터는 31일까지 운영된다.

고추축제 빨리따기, 해풍고추 컬링, 고추 캠퍼스 경매 등 체험마당을 대폭 늘리면서 관광객들은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고창해풍고추의 특징과 우수성을 확인했다. 고창 해풍고추는 미네랄과 게르마늄을 함유한 황토 땅과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머금고 자라 결집이 두껍고 맛과 매콤한 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소득이 높은 농어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해풍고추 품평회에서는 상하면 박용호 농가의 빛깔고운 고추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면서 최고의 해풍고추로 선정됐고, 최우수상 아산면 김수현 농가, 우수상은 무장면 이호현, 심원면 김재수 농가가 수상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배, 동남아 수출길 올라

정읍시의 특산물인 정읍 배가 대만과 베트남, 홍콩 등 동남아 수출길에 올랐다. 시는 조생종인 일월배와 화산배, 신고배 등을 연말까지 150톤(11만불)을 수출한다고 밝혔다.

수출된 배는 정읍간판인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정진, 이하 정읍조공)과 함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직접 입산했다.

정읍 배는 1994년 캐나다 수출시장을 개척한 이래 동남아, 대만 등지로 넓혀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우수농산물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상품화기반구축사업으로 최신식 과수 선별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수출 물류비와 농산물 수출 포장제 등 다양한 사업도 매년 지원해 오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해외 판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 관계자와 정읍조공 대표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등지의 대형매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배와 토마토 등 판촉 행사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판촉 활동을 벌이고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연지사장이 해가 지나 모처럼 여름밤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 붐볐다.

창업자의 자생력 UP! 지역 경제력 UP!

정읍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로크파티' 성료

정읍 연지사장이 해가 지나 모처럼 여름밤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 붐볐다.

최근 정읍 연지사장(정, 고추시장)에서 (사)청년경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보부상 사업단이 주관한 로크파티(Local Creator Party)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침체돼 있는 연지사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상권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청년간의 소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마지막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여름 문화 축제장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플래시몹 공연과 댄스파티 등 다양한 지역 동아리들이 출연해 맥주파티에 가장 어울리는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 8월 생일자들을 위한 이벤트와 아이들을 위한 영화상영, 단풍잎 책갈피, 양말공예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료체험 행사도 가득했다.

이날 이벤트에 참가한 한 생일자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재미있어 하루를 통째로 선물 받은 기분이었다"며 "이번 로크파티를 계기로 전통시장과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기획한 (사)청년경제연구소 백정록 소장은 "이번 로크파티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로 청년 창업의 가능성을 미리 시험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양한 훈련과 시험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영원면, 일본 보이콧 운동 적극 동참

영원면 주민들이 아베 정권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며 'NO아베, NO재팬'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영원면 이장단과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주민 50여 명이 최근 면사무소 광장에 모여 일본제품과 일본 문화를 근절하는 일본 보이콧 운동을 전개했다.

영원면 주민들은 이날 아베 정권이 시행하는 수출 규제를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침략으로 간주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대대단결했다.

"일본제품 안사기, 안먹기, 안입기, 안보기, 안타기, 일본여행 안가기" 표어를 외치며 국산품 애용 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는 이번 보이콧 운동은 흔히 쓰는 일본제품을 모두 국산품으로 대체해 일상생활에서 일본의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목적

이다. 특히 일본 공산품뿐만 아니라 일본 농수산물을 중점 경계하여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주민들은 평소 사용하는 일본 제품들과 그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품과 국내 여행지 등을 공유하며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무한정으로 불매운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원면 주민자치위원회 전병수 위원장은 "아베 정권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우리의 작은 행동이 이번 위기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내수시장을 키우고 향후 아베 정권의 그 어떤 저해행위에도 대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봉덕 공공실버주택 입주 경쟁률 1.5대 1 '큰 인기'

부안군은 부안 봉덕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결과 총 116세대가 신청 접수해 약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집 신청 접수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공공실버주택 1층 사무실에서 진행했으며 견본주택 관람의 기회도 주어졌다.

부안 봉덕 공공실버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영구임대주택으로 모집세대수는 26㎡형 80세대이다.

모집대상은 1순위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자 중 국가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며 2순위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3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접수 신청했다.

부안군은 접수 신청자의 소득, 자산 기준 및 무주택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오는 12월 중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smaller images of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quantities.